

차 오누키에매미충 발생소장 및 피해 해석

신길호, 김길자, 김주희, 임근철, 김도익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최근 들어 차재배 주산지인 남부지방에서 차 오누키에매미충(*Empoasca onukii* Matsuda)에 의한 차 신엽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발생소장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 생육시기별로 타락법을 이용하여 오누키에매미충 발생밀도를 조사한 결과, 보성군 회천지역에서는 7월 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 하순과 9월 중순에, 차시험장에서는 세물차 수확기인 9월 상순과 10월 중순에 발생 peak를 보였다. 황색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오누키에매미충 발생밀도를 조사한 경우 포획수는 타락법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방법간에 높은 상관($r^2=0.81$)을 보여 황색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생 예찰을 할 수 있었다. 오누키에매미충의 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포획수는 황색에서 가장 많았으며 흰색, 청색 보다 3배 이상의 포획수를 보였다. 오누키에매미충에 의한 피해율은 회천지역에서는 2000년의 경우, 7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9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최고 7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차시험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재배년수에 따른 피해율을 보면, 차나무 수령이 적은 시험장에서 피해가 더 심한 경향을 보였다. 2001년에는 전년 보다 피해가 적었으며, 회천지역에서는 7월 중순부터 피해율이 관찰되었으며 9월 중순에 피해가 가장 심했다. 차시험장에서는 전년 보다 늦은 9월 상순부터 피해가 나타났으며 10월 하순에 최대의 피해를 보였다. 차나무 수령별 피해를 보면, 9월 하순까지는 수령이 많은 회천지역에서 피해가 컸으나, 그 후부터는 수령이 적은 차시험장에서 피해가 많아, 차나무 수령별, 년차별, 지역별로 피해율에 차이가 심했다.